

규모에 관계없이 중추공급 가능

채관산업에 있어 완전시설 자동화가 이루어져 계사의 사육 단위가 증가하면서 중추업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는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계의 연구 93.1호에 게재된 중추농장소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일 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주)아자미 중추농장은 관월고속도로 나가사키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농장이 밀밭으로 둘러싸여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없이 18년째 농장경영을 해오고 있다.

이 아자미 농장은 무창계사를 확보하여 완벽한 중추사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몇년간 일본 양계농장의 추세는 새로 건축하는 계사 대부분이 무창계사로 지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모가 증가하는데 따른 대량입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창계사에서 중추를 육성하여 공급하는 길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개방계사에서 무창계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동화시설은 1동에 5만6천수 규모가 동시에 입추될 수 있게 하였는데 독일에서 빅더치만 케이지를 도입하여 대지 약 3천평에 향후 2개동을 더 증설하여 총 3개동을 가지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경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완공된 계사를 보면 길이가 76m, 폭 12.5m로 3단4열 육추케이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창계사의 중추농장 경영을 맡고 있는 요시노리씨는 호쿠리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도환부화장에서 줄곧 일하여 왔는데 이 아자미농장의 무창계사 건축시에 그때 쌓은 경험을 최대한 살려 내구성과 경영상 이익을 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두어 선택했다는 동기가 무엇보다 돋보인다.

요시노리씨가 빅더치만 중추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하게 된 동기 몇가지를 요약해 보면 1. 급이통이 케이지 밖에 있어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하다. 2. 병아리가 급이통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체인에 걸려 폐사하는 일이 없다. 3. 사료가 허실되지 않는다. 4. 케이지 높이가 178cm로 되어 있어 작업이 용이하고, 한칸 높이는 41cm로 초생추부터 120일령 또는 140일령까지 한곳에서 계속 육추가 가능하다. 5. 케이지의 견고성과 안정된 상태의 사육조건 조성이 가능하다. 6. 급이통의 두께는 1mm로 튼튼하며 부식이 없다. 7. 초생추 입추후 사료를 별도로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동급이기를 사용하여 급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 선택을 하였다는 점이다.

1. 자기 농장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

아자미농장 요시노리사장은 중추사 자동화를 자기 농장여건에 알맞도록 케이지를 3단으로 하여 관리가 용이해 작업상 능률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기 경험과 사전 경험이 있는 농장에서 자료를 구입하여 독자적인 설계를 하였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 배수관

백신 음수 투여시 기존의 급수파이프 밑에 다른 파이프를 설치하여 밸브를 열면 기

존 파이프 속에 있던 물이 이 예비 파이프를 통해 완전히 배출된다.

이렇게 하여 균일한 백신투여가 가능해져 백신 면역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 반크리너

현재까지 반크리너는 우사나 돈사에 주로 설치하여 축분을 처리하여 왔는데 아자미농장에서는 계사에 스크레퍼나 계분벨트를 이용하지 않고 반크리너를 설치하여 계분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였다. 반크리너는 질적한 계분을 처리하는데 적합하게 고안되었으며, 인력투입을 적게 하고도 효율적으로 계분을 제거할 수 있는데 5만5천수가 입추된 계사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한사람이 1일 40분이면 처리가 가능하다.

3) 바닥 난방

계사바닥에 파이프를 ㄷ자형으로 설치하여 온수가 통과하도록 하여 계사내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케 함으로 특히 초생추 입추 때 사료급여시 습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4) 내·외 벽재

종래의 재질 보다 두꺼운 단열재(5mm)를 사용하였고, 문에는 고무패킹을 붙여 외부기온의 유입을 차단하여 계사내의 보온성을 높여 첫모이 급여시 셋바람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도록 하였다.

신계사의 수용능력은 최대 5만6천수가 가능하나 여러가지 조건을 분석하여 5만~5만5천수가 적당한 숫자라고 판단하여 분



양일을 고려하여 입추하였다.

이제까지 3회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평균 육성율이 101~102%(덤포함)에 이르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다.

중추케이지 시스템은 사료를 번거로움 없게 정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수방식도 지금까지는 워터컵식이어서 병아리가 겁안으로 들어가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니플로 교체하여 물의 오염을 막아 항상 깨끗한 급수를 할 수 있는데 니플 끝에 항상 물방울이 맺혀 있어 병아리가 쉽게 물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무창계사의 관리는 1일 2시간이면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2. 현실을 고려한 경영관리

중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리하는 요시노리씨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양계농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예를들면 계사주위에 있는 발과는 최소 5m의 간격을 두고 정리

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더욱 신계사의 경우에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변의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민감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백신을 철저히 하여 질병 피해를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계사내에 출입은 특별한 작업이 아니고는 가능한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성 호흡기 등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즉시 보강접종에 들어간다.

요시노리씨는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양계업을 부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큰 대규모 수준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착이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규모 고객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장래에는 10만수, 20만수를 사육하는 대규모 고객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효율이 좋고 작업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점을 중시하여 아자미 농장은 다양한 중추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양질의 중추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양계**

